

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5. 27.(목) 17: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장재동 방재팀장 임재성
		전화번호	051-718-0200 051-718-0328

28일(금) 천둥·번개와 돌풍, 우박 유의

- 부울경 천둥·번개, 울산과 경남북부내륙 1cm 내외의 우박 가능성
- 해안 중심 시속 70km 이상의 돌풍 가능성 높아
 - 비닐하우스, 전신주 등 시설물과 과수 등 농작물 피해 주의



[5월 28일(금) 오후 기상상황 모식도]

-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직무대리 장재동)은 28일(금) 오후 부울경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와 비가 내리고, 울산과 경남 북부내륙은 천둥·번개와 우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기압계 전망]

- 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이 28일 오전에 서해상, 낮에 중부지방을 지나서 저녁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 최근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과 비구름을 발달시켜 잦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하며,
- 28일에도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 내외의 찬 공기를 가진 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이 남서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수 전망]

-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우리나라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8일 낮(12~15시)에 경남서부지역을 시작으로 동진하면서 오후(15~18시)에 부산, 울산, 경남동부지역까지 확대되겠다.

< 예상 강수량 (28일) >

- 부산, 울산, 경상남도: 5~20mm

- (천둥번개)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 내외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짧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 (우박) 특히 28일 낮(12~18시)에 울산과 경남북부내륙(거창, 함양, 합천, 창녕, 밀양)을 중심으로 1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 비닐하우스와, 전신주 등 시설물과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강풍 전망]

- 내일(28일) 낮(12시)부터 모레(29일) 새벽 사이 부산, 울산, 거제는 시속 30~60km(초속 8~16m)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며, 최신의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풍랑 전망]

- 내일(28일) 낮부터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남해동부먼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부산앞바다, 거제시동부 앞바다, 울산앞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5~60km(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가 내려지겠고,
 - 남해동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고,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하며,
 - 동해남부해상에는 29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29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대조기)으로 남해안은 만조 시 해안가와 갯바위 안전사고(고립사고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항공기와 해상 선박의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